

순천, 원도심 ‘애니·웹툰 클러스터’ 조성 본격화

‘글로벌웹툰허브센터’ 새단장…케나즈 직원 근무 콘텐츠 기업 26곳 입주 확정…연말까지 35곳 유치

순천시가 민선 8기 3대 경제축 가운데 하나인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애니메이션·웹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31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중앙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통과하며 본격화됐다. 시는 국가 정원과 원도심을 양축으로 시설 조성을 시작했고, 하반기부터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입주하고 있다. 먼저 웹툰 앵커기업 ㈜케나즈와 오노코

리아가 입주한 옛 웹툰센터는 리모델링을 마치고 ‘글로벌웹툰허브센터’로 새롭게 출발했다. 지난 3월 2층 사무공간 입주를 시작으로 건물 전체가 준공되면서 이전 인력과 신규 채용 인력을 포함해 약 50명이 근무를 시작했다. 또 원도심 공실을 활용한 ‘창·제작기지(원즈랜드)’에는 애니메이션·웹툰·출판 등 중소 콘텐츠 기업 26개사가 입주를 확정하고 순차적으로 이전 중이다. 이들은



오는 11월까지 모두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연말까지 총 35개사 유치를 목표로 협의 중인 기업들의 입주를 서둘러 확정짓고, 추가 기업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원도심의 대표 공간인 ‘남문터광장’도 콘텐츠 기능을 강화한다. 지난 6월 원도심 콘텐츠 축제 ‘원즈(Wants) 순천’의 주 무대로 활용된 남문터광장은 주민과 상인회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개선안을 확정하고 최근 착공에 들어갔다. 기존 공간의 건축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신연자루 철거로 옥천과의 단절을 해소하고 바람길을 조성해 수변공간과의 연결성을 확보한다. 또 중앙로와 맞닿은 입구를 개선해 개방감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크게 높인다. 광장 전면 파빌리온에는 LED 전광판을 설치해 입주 기업들의 콘텐츠와

IP를 상영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서울 소재 콘텐츠 IP 전문기업 ㈜다오리진이 남문터광장 이전을 확정했다. 다오리진은 게임 앵커기업으로서 애니·웹툰과 연계한 콘텐츠 IP 제작과 지역 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콘텐츠 기업들의 본격 입주 주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지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과 인제양성 거점기관 조성 등 후속 지원에 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여수 e스포츠 페스티벌’ 6일 결선…8팀 최종 승부

여수시는 9월 6일 여수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2025 여수시 e스포츠 페스티벌’ 결선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e스포츠 저변 확대와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 7월 21일부터 지난 달 20일까지 진행된 참가자 모집을 통해 전국 청소년 269팀 721명이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경기는 △발로란트 △FC온라인 △브롤스타즈 3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발로란트와 FC온라인은 지난달 23~24일 온라인 예선전이 진행됐으며 8개 팀이 결선에서 최종 승부를 가린다. 브롤스타즈는 대회 당일 오전 10시까지 참가 신청을 받아 예선과 결선이 연이어 치러지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이번 대회는 공인 e스포츠 심판과 전문 캐스터의 진행으로 공정성과 현장감을 더하며 종목별 1~4위에는 시장상장과 총상금 1000만원이 수여된다. 또한 현장을 찾는 관람객들도 위해 △추억의 오락실 △친환경 나무놀이터 체험 △보드게임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로 3회째를 맞는 e스포츠 대회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새로운 여가문화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섬진강기차마을 물놀이장, 피서지 ‘각광’ 한달간 1만6000여명 방문…체류형 관광 효과 이끌어

곡성군은 여름철 임시 개장한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어린이 물놀이장이 마지막 날 방문객 1000여명을 넘기며 한 달간 총 1만6000여명의 방문객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섬진강기차마을 어린이 물놀이장은 요슬랜드 인근 약 1만㎡ 부지에 최장 79m 워터슬라이드 2개와 어린이 조합 놀이대 5개를 설치하고 열대 야자수 포토존을 조성해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 그늘막, 물놀이용품 대여소, 샤워실, 물품보관소 등의 편의시설을 강화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더불어 더위에 지친 어린이 방문객을 고려해 정문에서 물놀이장까지 캐비버스들을 운영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안전관리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수

질 검사뿐만 아니라 매일 시설을 점검하고, 배치된 전문 안전요원들이 어린이들을 수시로 주시하며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또 운영시간마다 간단한 청소와 안전 점검을 추진해 무사고로 운영을 마칠 수 있었다. 군이 올여름 새롭게 선보인 어린이 물놀이장 입장객은 일 최대 1526명을 기록했고, 만족감을 느낀 이용객들이 5회차까지 재방문하는 등 주말과 휴일에는 최대 380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를 실감케 했다. 물놀이장을 찾은 외부(유료) 관광객은 전체 방문객의 93.7%로 집계되며 기차마을 내 레일바이크, 증기기관차, 전시체험 등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 효과를 이끌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최근 나주시 빛가람동 빛가람로 696 일원에서 열린 ‘2025 빛가람 하이볼·비어 페스티벌’이 1만명의 인파가 운집하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사진은 이번 축제에 구름 인파가 몰려 공연을 즐기고 있는 모습.

나주, 빛가람 하이볼·비어 페스티벌 ‘구름인파’

1만명 참여…DJ 공연·먹거리 부스 등 상권 활력

나주시가 도심 속 거리 축제로 열린 ‘2025 빛가람 하이볼·비어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공동체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31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빛가람동 빛가람로 696 일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가 1만명의 인파가 운집해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을 달래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빛가람혁신도시상가번영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도심 속 거리에서 시민이 함께 즐기는 참여형 문화축제로 진행됐다. 나주시립합창단 공연으로 시작해 초

대가수 무대, DJ 공연, 먹거리 부스,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특히 준비된 하이볼과 맥주 시음(각 500잔)은 조기 매진되며 인기를 입증했고 이후 판매분도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돼 큰 호응을 얻었다. 무대의 하이라이트는 ‘DJ 뉴진스’의 공연으로 트렌디한 음악과 유쾌한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끌어들였다. 현장 댄스 챌린지와 음악 퀴즈 이벤트는 젊은 세대는 물론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함께 참여하게 했다. 지역 상인들이 참여한 먹거리와 플리마켓 부

스도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축제는 지역 상인들이 준비한 먹거리와 플리마켓이 준비하고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이벤트로 어우러진 화합의 장이다”며 “10월 8일부터 열리는 영산강축제도 지역 상권과 연계해 상인들한테는 힘이 되고 시민들한테는 흥을 돋우는 시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영산강정원에서 ‘2025 나주 영산강축제’를 개최하고 연말에는 ‘빛가람 빛정원 페스타’를 열어 겨울 도심을 밝히는 빛의 향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

장성, 고품질 딸기 재배 지원 20일까지 꽃눈 분화 등 검사

장성군이 9월 20일까지 딸기 재배농가 대상 꽃눈 분화 검사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딸기는 낮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낮은 온도로 일정한 기간 기다렸다가 아주 심기(정식)를 해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딸기 꽃눈 분화 검사는 눈으로 관측하기 어려운 딸기묘 생장점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꽃눈 분화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를 통해 꽃눈 분화 단계를 확인한 뒤, 포장이 옮겨 심는 시기와 방법을 결정한다. 수확시기 지연을 막는 것은 물론, 고품질 딸기 생산에도 유리하다. 기간 안에 딸기묘 3~5주를 채취해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로 가져오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이상 기온으로 인해 딸기 꽃눈 분화 검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품질 딸기를 수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hnb6699@gwangnam.co.kr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 국비 건의

광양시는 최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 노후화된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공사를 위한 국비 98억원 지원을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총연장 11.4km에 달하는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내 교량 등 도로구조물 42개소의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김경원 광양부시장은 “광양항 배후도로는 국가 물류 거점항만을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노후화된 교량과 도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속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물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광양항 동측 배후도로는 1998년 12월, 서측 배후도로는 2010년 11월 여수지방 해양수산청이 각각 준공했으며, 이후 2002년과 2012년 협약을 통해 광양시에 이관됐다. 당시 협약에는 준공 이후 보수·보강 사업비를 국가가 지원하기로 명시돼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Social Enterprise
사회적기업

직원과 고객, 더불어 성장하는
주식회사 노아

시설물유지관리, 건축공사, 금속창호공사, 도장공사, 방수공사

옥상방수공사

물탱크도장공사

화장실공사

인증 및 특허

사회적기업인인증서, 시설물유지관리 전문건설업등록증

공공기관 실적

- 목포시 수영장물정비단 부분보수
- 전남체육고등학교 웨이트트레이닝실 벽체보수공사
- 목포교육지원청 유치원교실 바닥보수공사
- 신안교육지원청 장산초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심형배수장의 보수공사
-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스타트업 보육실 인테리어공사
- 여수지방해양청 거문도등대 태풍피해 복구공사
- 무안군청 삼향교 복용교 교량난간 정비공사

노아건설(주)

전남 목포시 연산백련로 1번길 51 ☎ 061-285-6100